

지역 매아리

고창군,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내 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슬로건과 내 나라 인생여행이라는 주제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

고창군은 국내 유일의 국내여행 박람회 행사인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에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예술 자연생태환경 자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농가공산품을 전시해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우수함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군은 2018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3년 연속 선정돼 10월17일(음력 9월9일 중앙절)전후 5일간 개최되는 고창의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에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관광객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생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도시인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 의안 처리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28일 제2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재산 및 기금, 채권 및 채무,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볼 결산감사위원회도 선임했다.

대표 감사위원으로는 고창군의회 이봉희 의원이 선임되어 민간 위원들과 함께 2017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인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금년도 업무계획이 일차로 차질 없이 추진돼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용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부안군, 국비 7000만원 지원받아 지역 특화산업 맞는 인력양성

부안군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안 참봉산업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으로서 가공 현장 실습 및 관련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1차적으로는 오디 활용 가공업체와 요식업체 등에 취업해 실무경험능력을 쌓

고 최종적으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와 요식업 분야 등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중순부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사업수행기관인 전주기전대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

에 맞는 직업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통계청에서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지역 고용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 고용률은 70.3%로 도내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이옥수기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눈길'

정읍시 소성면, 독거노인 가정 방문 봉사활동 펼쳐

소성면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해 면은 지난 27일 홀로 사는 노인인 고모(81)씨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맞춤형복지팀 직원과 준수씨 관리자인 마을이장 등 4명은 낡은 가스레인지를 새 가스레인지로 교체했다. 또한 부엌과 방안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청소했다.

고씨는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바꿀

일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면 관계자는 "대상자 맞춤형 복지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의 수요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은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위해 지역 내 사례 관리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해 필요한 욕구를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도배 장판과 세탁기 교체 등의 주거 개선(250만원, 5가구)을 비롯 의료비(160만원, 4가구)와 생활비(30만원, 1가구)를 지원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순국선열 숭고한 희생정신·애국정신 기려 정읍시 3.1절 기념행사 가져

정읍시는 제99주년 3.1절인 1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유관기관 단체장과 유족 등 70여명은 당일 태인면 3.1운동 기념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진정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매년 3.1절이면 호남지역 만세운동의 기록제가 된 태인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과 시가행진, 재현행사 등을 가져왔으나 올해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해 시가행진과 재현행사 등을 취소하고 축소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AI로 기념행사를 축소 개최했지만 민족



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귀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태인독립만세운동 정신을 정읍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100주년 내년에는 빈틈 없이 준비해서 3.1 정신을 뜻깊게 기

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행사를 주관해온 태인청년회 의소회장 손국현도 "100주년 행사를 통해 3.1운동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발벗고 나서

부안군민의 급수원인 부안 댐의 용수공급 대응능력이 '심각 단계'에 들어서자 부안 군의회 의원들이 부안 댐을 방문 부안군민들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28일 부안군의회는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많은물사업소로부터 '부안군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관리단을 방문 '부안 댐 가뭄 대응 운영 현황을 브리핑받고 직접 부안 댐의 저수율 등을 점검했다.

점검적으로 가뭄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부안군 또한 2월 28일 기준 2018년 누적강우량이 57.7mm으로 이는 전년 86.6mm의 66%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현재 '관심 단계'에 있는 부안 댐의 용수공급 대응능력이 이달 말까지 무강우시 '심각 단계'에서 들어서 부안 군민들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부안 군의회에서는 부안군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물사업소에 가뭄으로 인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고하고 부안 댐을 방문하여 부안 댐 가뭄대응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물사업소 및 부안 댐 관리단은 '부안군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서 △ 누수탐사 및 긴급 복구 △ 섬진강 및 용담댐 광역 상수도 연계운영 △ 감압밸브 4개소 신설로 누수량 줄이기 △ 지속적인 수돗물 절약 캠페인 운영 등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 부안군민들에게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우천규 정읍시의원 4일 출판기념회

정읍의 미래 먹거리로 평소 역사·문화의 자원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천규 정읍시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부가까지 창출과 이를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항상 사색하고 고민해 왔다.

책은 정읍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등 지정문화재 113건을 그만의 시각으로 설명하며 자랑하는 내용이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우천규 시의원이 오는 3월4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우천규가 본 정읍의 미래'를 출간해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우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수 문화지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향 사랑과 정읍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을 느낄 수 있으며 시대흐름에 앞서는 선견지명을 엿볼 수 있다.

우 의원은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읍을 알리는 안내서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내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의도에서 출판한 편지"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성남시의회, 우호의회 결연 협약식

정읍시의회와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성남시의회에서 우호의회 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결연 협약식은 지난해 양의회의장간 자매결연 상호 제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성남시의회가 정읍시의회를 내방하여 구체적인 협약식 일정 및 내용 등을 합의 후 이루어지게 되었다.

협약식에서는 ▲양 시민의 복지향상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간 협력 ▲기타 양 의회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은 "앞으로

양의회간 진정성 있는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협약식에 재성남 정읍 향우회원 등을 모신만큼, 양의회가 앞으로 더욱 견고한 관계를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농촌의 뿌리인 지방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